정교회주보

제2526호

2025년 5월 25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부활 후 제6주일 (소경 주일)

세례자 요한 머리 발견 기념일

(제5조 • 조과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 38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고린토 후 4,6~15 ··· 248
- 복음경 : 요한 9,1~38 ····· 102
- 성모송 ·····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사진 설명

신트론과 주교좌

신트론(사진)은 성당의 동쪽, 즉 지성소 제단 뒤에 반원형 또는 계단식으로 배치된 주교좌와 좌우 좌석 구조물을 통칭한다. 신트론의 근거는 요한 묵시록(4,4-11)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느님의 보좌 양쪽으로 24개의 좌석이 배열된 구조가 묘사되어 있다.

신트론 중앙의 주교좌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오르시는 하늘과 땅의 보좌를 상징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던 높은 위치의 보좌로서,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예고한다.

신트론에 놓인 주교좌 위치는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사도들에 의해 정해졌는데, 그 내용은 "주교좌는 가운데 놓고, 그 양쪽에는 원로들이 앉는다."라고 했다.

지역 교회의 영적 아버지인 관할 대주교만 신트론의 주교좌에 오를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주교는 이곳에 착좌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바울로 사도는 희망을 “닻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준다”(히브리 6,19)고 표현했습니다. 닻이 없는 배는 해안가 바위에 부딪혔을 때 산산조각 날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거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실망이 많은 이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망이나 낙심,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허무한 이상향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시련 뒤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태양이 때때로 구름 뒤에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믿음 위에 희망을 세운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 그런 자가 인생 속에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겠지만
> 그가 지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통해 희망을 키우고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실망을 이겨내며 자신의 영적 투쟁을 위한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도 바울로가 로마서에 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로마 12,12)

하느님에 대한 희망은 진정한 기쁨을 낳습니다. 현대인은 여러 가지 즐길 거리, 오락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정한 기쁨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일상 속에서 많은 문제를 겪더라도, 결국 다음과 같은 장엄한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나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골로사이 1,24 참조)

희망을 지닌 사람들은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이사야 40,31)합니다. 희망을 지닌 사람들, 곧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사람들은 인생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믿음 깊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 나이팅게일 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자신의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발 밑의 땅이 흔들릴지라도 절망 속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희망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기와 낙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떤 유혹이나 사람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 곧 그리스도를 ‘빼앗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라파엘 카렐린 수도사제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베푸셨나이다!

오고대의 그리스도교 성가는 사도들에 의해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복음서와 함께 이 성가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값진 유산으로서 간직되었습니다. 이 성가는 박해 시대에 로마의 카타콤(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된 지하 묘지)과 유대의 동굴 안에서 승리의 찬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부활절 밤이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모든 정교회 성당에서 영적인 빛의 물결처럼 흘러나와, 어두운 밤을 기쁘고 밝게 빛나는 낮으로 바꿉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마치 어떤 신비로운 중심처럼 이 말속에 구약의 모든 빛줄기들, 그 예언들과 인상(印象: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느낌)들과 약속들이 모여들어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마치 빛의 심연에서 나오듯 이 말의 깊이로부터 광선이 퍼져 나와 우주 전체에 빛을 내뿜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와닿는 그리스도의 손길처럼 이 말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불멸에 대한 확증이며, 죽은 이들의 미래 부활의 상징, 영원한 생명의 시작, 지옥과 죽음이라는 두 폭군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곧, 지상과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신 것'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로써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이 말 안에는 우리 신앙의 빛, 우리가 지닌 희망의 기쁨, 우리가 가진 사랑의 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사에 응대하여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함께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간 예배 안내

* 5월 28일(수)
  부활절 종례일
* 5월 29일(목)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부활절 종례일 저녁 예배
  5월 27일(화) 저녁 7시 30분

알 림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안식 3주기 철야 예배 및 추도식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안식 3주기를 맞아 가평 수도원에서 6월 13일(금) 저녁 8시부터 철야예배(만과, 조과, 성찬예배) 및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참례하실 분들은 6월 8일까지 각 지역 성당으로 신청해주시면 여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 성당 보제 신품 성사

오는 오순절 주일(6월 8일) 성찬예배에서 미국인 교우 크리스토퍼 욘커(Christopher Jonker)의 보제 신품 성사가 거행됩니다. 새로운 보제가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합당하게 봉직하고, 선한 사목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당 - 산불 피해자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서울 성당에서는,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우리은행 1005-101-635905
  (한국정교회 성니콜라스 대성당)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 새 로마 교황 즉위식 참석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는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故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의 장례식(4/26)과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식(5/18)에 참석하였습니다.

영성의 샘터

"너는 나의 일을 하라"

실루아노스 사부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나에게 명령하신다. '너는 나의 일을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먹여 살리리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일을 한다면 수고비, 즉 하느님의 자비로 먹고사는 것이다."